




TEAM 산업튜 (산재업고튜어)
AI 산재 판별 서비스

서비스의 제작 배경 및 필요성(1)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재해노동자 권리 위해 법 개정 필요”

조연주 기자 입력 2024.06.24 16:37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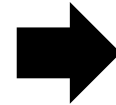
양대노총, 산재보험 60주년 맞아 평가와 과제 살피는 토론회 개최
후퇴계약 중단, 모든 노동자 전면적용, 신속·충분한 지원 강화 등 목소리 높였다



노동자 53% “산재보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울산에서는 4월 11일, 12일, 15일 3일간 동구지역 6개 산재지정병원을 방문해 요양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산재주방운동연합 회원들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105명, 50~300인 미만 사업장 139명, 500인 이상 사업장 399명이었고, 노조 가입자는 551명, 미가입자는 92명이었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344명(53%)이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려서(32%)**, **산재 불승인이 많아서(29%)**, **산재 신청이 어렵고 복잡해서(20%)**, 산재 치료 기간이 짧아서(12%), 산재보상이 적어서(4%)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는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려서" (32%) ,

"산재 불승인이 많아서" (29%)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20%) 등의 응답

산재 신청 절차의 복잡성 → 법을 모르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산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기존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신청 판별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서비스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1)

- 사용자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

시간절약

AI를 통해 신속하게 산재 가능성 판단
사용자의 결정에 도움

정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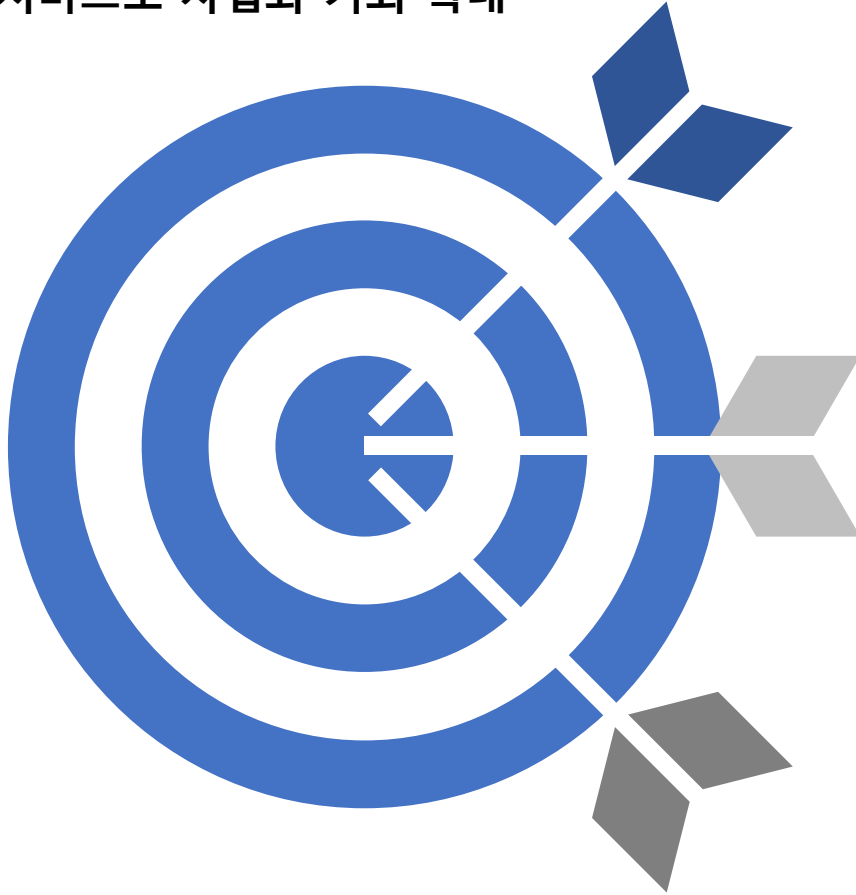
기존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도출

향후 법령 조회 및 상세한 판례 분석 등,
기능을 제공해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

법적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서비스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2)

○ 노무사 연결 서비스로 사업화 기회 확대



산재 관련 문제 해결 지원

-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를 쉽게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서비스 가치

- 사용자들이 복잡한 산재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 **사용자와 노무사 모두에게 가치 있는 플랫폼**
- 산재 AI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수익 모델 강화

비즈니스 모델

- 노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아 사용자에게 간단한 정보를 제공
-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노무사를 추천하여 사용자 문제 해결 지원
- 노무사에게는 새로운 고객 소개 기회 제공

트러블슈팅

판례 데이터에 내용을 상황과 이유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사도를 이용한 판례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처리 과정의 시간을 대폭 낮췄다.

방대한 데이터로 인해 임베딩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허깅페이스에 사전 학습된 kobart 모델을 이용, 내용을 요약하여 임베딩 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